

[1] 수도원 안에서 월권행위의 모든 기회를 피할 것이니, [2] 아빠스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파문시키거나 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바이다. [3] (이를) “위반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징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할 것이다.”

[4] 그러나 15세까지의 어린이들은 규율을 지키도록 모든 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할 것이나, [5] 정도와 이치에 맞게 할 것이다.

[6] 누가 만일 아빠스의 명령 없이 장성한 사람들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거나 혹은 어린이들에게 분별없이 화를 내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니, [7] “너에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”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.